

개호보험제도

고령자가 존엄을 유지하면서 그가 지닌 능력에 따라
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,
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합니다.

2021년 4월

 도쿄도